

■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 계획' 발표

“65~74세 27일, 60~64세 내달 7일부터”

30세 미만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6월부터 '화이자'

5월 말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6월 초부터는 60~64세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6월부터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대상 화이자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3일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2분기 접종대상 고령층의 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65~74세'에

만 AZ 백신 접종을 계획했다가 이번 60~64세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65~74세는 이달 27일부터 AZ 백신을 맞게 되며 60~64세는 내달 7일부터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AZ 백신을 접종받는다. 대상은 1947년 1월 1일생부터 1961년 12월 31일생까지다.

접종 예약은 고령층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순으로 진행된다. 70~74세는 오는 6일부터 먼저 시작되며 이후 65~69세 예약은 10일부터, 60~

64세는 13일부터 예약이 시작된다.

30세 미만 중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AZ 백신 접종은 지난달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백신과 희귀 혈전증(피떡) 간 관련성이 제기되면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와함께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교사 및 돌봄 인력도 5월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AZ 백신을 접종받는다.

지난달 1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이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선 6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엔 현재 AZ 물량 5308여 분이 남아있으며 잔여 물량 상 오는 8일까지 1차 접종이 이어진다. 이후 추가 배정 물량에 따라 접종이 이어지며, 2월 말 1차 접종을 받은 이들에 대해선 오는 21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도내 AZ 1차 접종자는 2만1375명이다. 화이자 백신은 1차 1만9790명, 2차 6253명이 접종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11년간 불법운행... 30여건 과태료 체납”

자치경찰단, 대포차·무보험차 단속통해 6명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4월 2개월 동안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해 불법 운행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로 추진했으며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금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을 운행한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또 C씨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친구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발각됐다.

E씨는 체무관계에 있는 F씨로부터 채무이행의 대가로 차량을 인수받아 소유권 이전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함에 따라 F씨가 운행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며, 수사관이 차량 이동동선을 추적해 적발하게 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차량들은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변호관까지 영치함으로써 더 이상 대포차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 완료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포차 운행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고대모기자

“인권침해 의혹 있어도 교도소 CCTV 공개 불가”

인권침해 의혹이 있더라도 교도소 내 CCTV 영상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해 9월 13일 A씨는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금지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징벌 절차 조사기록과 기동대실 및 진정실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지만, 제주교도소와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기록에는 참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영상외부에 유출될 경우 교도소의 보안체계가 노출되는 등 교정업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봄 바다와 어우러진 선인장 3일 제주시 한림읍 선인장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봄 바다와 어우러진 선인장을 구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이달들어 하루 1명꼴 확진

3일 자가격리중이던 1명 '양성'... 코로나 누적확진자 717명

제주지역에서 5월 들어 3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누적확진자 수는 총 717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14명(4월 27일~5월 3일 15명

발생)으로 전주 3.71명(4월 20일~4월 26일 26명 발생)명에 비해 1.57명 감소했다.

이날 확진된 제주 717번 확진자는 제주 69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다. 717번은 690번이 지난달 22일 확진된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진행 중이었다. 격리 시작 전 실시한 최초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됐다.

이날 717번 확진으로 690번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3명(제주 713·714·717번)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격리 중 증상이 발현됨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로 조사됐다. 강다혜기자

중간고사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

여고 사물함 토끼 사체 투기 용의자는 학생

도내 A여고등학교 학생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두고 달아난 여성은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A여고 내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두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힌 B양은 A여고 재학생이며 우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최근 중간고사 시험이 다가오면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시험을 연기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여고는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A여고 내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두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힌 B양은 A여고 재학생이며 우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성기자

지인 2명 사상 60대 구속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남성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장 판사는 3일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60)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

려가 있어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자신이 살고 있는 이도2동 소재 아파트에서 B(45·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전 4시40분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지인 C(66)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긴급수술을 받은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성기자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2022년 2월달 식재용 탱자묘 1년생 사전분양계약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만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국내개발 우수한 [신상품]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3.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향(붉은색 감귤)

2-7년생 하글, 팔삭, 세미블, 금금당유자, 아마니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중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번길 1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